

의학과 휴머니즘



맹 광 호
(경북대학교 교수/예방의학)

옥스포드 큰 사전에 보면 휴머니즘은 '신(神)적이 아닌 인간적 관심과 관련된 사상이나 행동체계'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과는 의미상 크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보다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 자체가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학은 휴머니즘의 극치를 실천

이렇게 볼 때 의학은 가히 휴머니즘의 극치를 실천하는 학문이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일찍이 의학이 그 신(神)적인 요소들, 예컨대 주술(呪術)과 종교적 의식의 형태를 벗어나 인체의 해부나 생리에 관한 적극적 연구를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옴으로써 인간주의적 사상과 행동체계를 가장 먼저 세워 온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학의 종교에 대한 도전, 즉 인체와 질병에 대해 인간적 연구와 관심을 갖기 시작함으로써 의학이 비로소 인간주의적 휴머니즘을 그 내용으로 하게 된 계기는 역시 서기 1500년대의 「베잘리우스」와 「하베이」에 의한 인체해부학과 혈액순환에 관한 인체생리학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모두 교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일들을 시작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이후로 의학은 매우 빠른 속도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새로운 인간학으로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 일은 의학을 순전히 과학적 방법만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과학의 승리, 나아가서는 신에 대한 인간의 승리라고까지 믿게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의학기술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좀 더 인간적 삶을 영위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질병을 퇴치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시켜 명실공히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해 온 것이다.

인간주의적 휴머니즘의 한계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의학은 최근 들어 여러가지 반(反)생명적 요소들, 예컨대 인공유산이라든지 안락사 그리고 비윤리적인 여러가지 생식(生殖)기술들을 발전시키는 한편, 의학적 기술의 사회적 적용인 의료활동에 있어서도 불친절과 차별 진료가 점차 보편화됨으로써 소위 인간주의적 휴머니즘의 한계를 들어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다시 호스피스와 같은, 많은 불치(不治)환자들에 대한 종교적 임종(臨終)간호의 가치가 새롭게 의학에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적인 사랑과 신(神)적인 창조질서를 무시한 인간적 관심과 기술발전 전에 최고의 목표를 둔 인간주의적 휴머니즘이 갖는 한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의 저명한 의학자이며 저술가인 「레위스 토머스」라는 사람이 의학의 기술을 다음 세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한 일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그는 의학기술을 소위 비기술(non-technology)로 불리우는 환자 ‘다루는’ 기술과 반(半)기술(half-technology)로 불리우는 인공장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중적(大衆的) 치료기술, 그리고 원인적 질병치료 기술인 항생제 개발이나 백신 생산과 같은 소위 고도기술(high-technology)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오늘날 의학이 교육이나 연구에서까지도 경쟁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기술은 거의 모두가 반(半)기술이며 이것이 결국 의료비만 상승시키면서 의학의 진정한 발전을 더디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전혀 기술이라고 할만한 것이 못되는 비(非)기술은 지금도 훌륭한 의사일수록 뛰어나게 갖추고 있는 기술로써 그 개발이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며,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백신이나 치료약제 개발같은 고도기술이야말로 진정한 휴머니티를 발휘하게 될 기술이라는 것이다.

따뜻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것은 만일 기술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그리하여 인류전체가 복리를 누리게 되는 상태가 최고의 휴머니즘 상태라고 했을 때, 그 기술은 보다 높은 가치의 학자적 노력에 의한 기술이거나 따뜻한 사랑의 실천을 내용으로 한 비과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도 전세계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세실」의 내과학 서문에 보면 환자가 늘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 다섯 가지를 열거해 놓고 있다. 그 대부분이 의사의 인간적인 면에 관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즉 환자는 의사가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의사가 자기를 하나의 인간적인 동료로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또한 의사가 자기의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상하게 일러주기를 바라며 의사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와 함께 환자는 의사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기술도 기대한다고 이 책은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하는 것은 절대로 종교적인 일만도 아닌 것이며 더구나 그 일이 모든 환자를 무료로만 봐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보다는 의학적 행위가 결코 질병에 대한 기술적 행위가 아닌 환자에 대한 인간적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는 것일 뿐이다.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과 이로 인한 환상적인 세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 그 첫해가 되는 서기 2000년이 이제 앞으로 5년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 5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는 다투어 과학기술분야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런 과학기술분야 발전 노력에 의학이 중요한 내용분야로 포함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의 이런 노력의 최종 목표가 건강과 장수일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적이고 윤리적이여야

실제로 21세기에는 최첨단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어지간한 질병은 쉽게 약물이나 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많은 질병에 대한 예방적 기술도 발달되어 건강이 크게 증진될 것이며 노화까지도 방지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술이 단순한 인간주의적 휴머니즘에서 비롯되고 또 거기에 멈춘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에 대한 엄청난 댓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고도의 기계화와 개발에 따른 인간성 상실과 자연환경의 파괴도 그렇지만 특히 생명연구와 생식의학의 발달이라는 이름아래 의료분야에 나타나게 될 여러가지 반(反)생명적 현상들에 대해서 의학은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의학은 그 자체로 철저히 생명적이여야 하고 이런 의학을 의료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의사들은 철저히 윤리적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의학이 추구하는 진정한 휴머니즘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이지 결코 인간의 무한한 동물적 욕구까지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결국 인간성을 파괴하는 일이 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ST**